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구원의 하나님

-복음으로 여는 호세아서-

호세아 3:1-5, 요한복음 4:13-18

정윤돈 목사님

“태초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여 죄를 짓고 사탄에게 속아 이 땅에서 열두 가지 문제, 오만가지 문제 속에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모든 문제를 종교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선행으로,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해결해주시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땅 끝까지 정복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천명, 소명, 사명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먼저 되고 또,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힘을 얻고 치유가 되며 답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아 도전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균형, 기준을 잃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여러분의 모든 기준, 표준, 수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의 기준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호세아서이다. 그래서 오늘은 호세아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복음만 가지고는 가정을 못 지킨다. 오직 복음으로 전도는 해도 어려울 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 복음으로 가야 한다. 오직이 안 되면 전도가 안 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오직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완전 복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말은 하지 않아도 향기로, 편지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느껴야 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아야 한다. 흑암이 꺾여야 한다. 이것이 완전 복음으로 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방향만 바로 가져도 우리는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고 세 자녀를 낳았지만 이 고멜은 또 다시 다른 남자와 연애를 즐기다가 팔려가는 신세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 순종한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값으로는 총 은 30개 정도로 고멜을 창기의 소굴에서 구원해주었다. 은으로 모두 지불하지 못했다는 것은 호세아가 은이 없었다는 것이다. 호세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식량까지 팔아서 고멜을 구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나중에 이 고멜은 어떻게 되었을까?’하는 것이었다. 그 답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수가성의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 이 여인은 남편이 5명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의 정식 남편이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되묻는다. ‘네가 나에게 구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니 너에게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생수가 될 것이다.’대답하신다. 여인은 그런 물을 나에게 주셔서 이 우물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한다. 이곳에서 다른 여인들이 모여서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혹자는 이 여인이 소외되고 외로운 여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도리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신다. 수가성 여인은 그 물음에 남편이 없다고 거짓말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제까지 네가 남

편 다섯 명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요, 모든 것을 다 아니까 여인이 말한다. 내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어도 답을 찾지 못한 상태였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바로 이 때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묻자,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신다. 이 여인이 당장 나가서 온 수가성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있다고 전한다. 그래서 전도캠프의 대폭발이 일어난 것이다. 이 수가성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은 사마리아지역에 있는 성이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이 과거에 호세아와 고멜이 살고 있었던 에브라임 지역과 동일한 지역이었다. 수백 년 전부터 유대인들은 앗수르에 의해서 종교적으로나 인종적으로 혼합되었던 이 지역을 지나가지도 않았다.(TCK)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은 이 지역에 찾아오셨던 것이다.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고멜이라는 여인도 음란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음란한 여인을 끝까지 구원하라고 명령하셨다.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것이다.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은 호세아였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으로 헬라어로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뜻의 이름이다. 호세아가 고멜을 구원해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마리아 땅에 살던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 그 여인을 지역을 복음화를 위한 전도캠프의 전도자로 치유해 주셨다. 고멜도 구원받은 이후로 평생 전도자로 살았을 것이다. 호세아와 예수님은 치유서밋의 모델이었던 것이다. 우리들도 현장에서 이렇게 세상과 사탄에게 속아 흑암과 혼돈, 공허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어 전도자로 변화시켜야 하겠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당시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앗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들이 무엇이었던지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들을 확인해 보기로 하겠다.

1.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한 내용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12가지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호세아서는 그들의 잘못된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다. 많은 불신자들은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들의 잘못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전도의 중요한 시작이며 키이다.

(1)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곡식과 금, 은을 가지고 우상에게 바쳤다. 호세아서 2장 8절을 보겠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어야 한다. 잠언 12장 1절에 보면 혼계를 멸시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말한다.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진리의 일종이다. 헛되고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나 중심, 성공중심, 물질 중심에 빠진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말해줘야 한다. 신종 플루의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원료는 팔각 회향의 씨라고 한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은과 금도, 희귀한 금속도, 희토류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무지가 근본적인 큰 죄이다.

(2)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참된 복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진리를 말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이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구호처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문자적 의미는 ‘못이 박힌 손바닥’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깨달아야 한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세상이 환하게 보인다. 내가 부족하더라고 답답한 것이 없어진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아직 답답하고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 먼저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그 응답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신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힘써 그리스도를 알자.’로 바꿀 수 있

다. 여러분도 이 구호를 언약으로 붙잡아 보기를 바란다. 영적인 성장과 응답이 놀랍게 올 것이다. 결국 복음과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하나님의 6가지 도구의 응답을 받는 마스터키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이다. 뜻을 가지고 먼저 생각만 바꾸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7대 언약의 흐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겠다. 복음의 훈련을 받은 만큼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 만큼 좋은 믿음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겠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한다.

(3)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울 때도 언약과 관계없이 세웠고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다. 호세아서 8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남유다 20명의 왕은 모두가 다윗 왕의 혈통이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한 명도 다윗 왕의 후대가 없었다. 그들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의 대열에 서지 않고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무속, 점술, 우상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불신앙의 길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앗수르 제국에 의해 나라가 없어지게 되었고, 앗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이방종교와 혈통으로 혼합시켜 버렸다. 그러나 약 800년 후에 예수님은 직접 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셨고, 그 땅을 치료해 주셨다. 주님은 끝까지 그 백성과 땅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란다. 이것도 천 년의 응답이다. 이 외에도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 할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다.

(4) 그들은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 호세아 7장 14절에 보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성심으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불러보기를 바란다. 부르지만 해도 이미 성공이다. 역사가 달라진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어린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엄마’부터 찾지 않는가. 여러분도 문제가 생기면 그리스도를 먼저 불러야 한다.

(5) 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앗수르와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였다. 호세아서 7장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사마리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앗수르로 가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었다. 또, 호세아 12장 1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학을 더하여 앗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했던 것이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사람과 세상에 타협하거나 의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당당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7명의 램넌트의 모습이다.

(6) 땅에 소득과 열매가 많을수록 제사를 많이 지내고 주상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호세아 10장 1절이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사탄이 세상을 속이고 있기 때문이다.

(7) 두 마음을 품고 우상을 섬겼다. 호세아 10장 2절이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진짜로 믿으시기 바란다.

2. 두 번째로, 호세아서를 통해 주신 복음의 말씀들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1) 이스라엘이 불신앙, 불순종하여도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당신을 위하여 237 선교를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호세아서 2장 23절을 보겠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공허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공허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선교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

기를 축원드린다.

(2) 호세아는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창녀로 팔려간 고멜을 돈을 주고 사왔다. 고멜의 이름의 뜻은 ‘완전한’이다. 이 여인은 복음 안에서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다. 이것은 완전 복음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는 줄을 믿기를 바란다. 그것이 구원이고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밋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향해서 도전해야 한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옮겨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1절에 나온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라는 의미는 세상의 즐거움과 맛있는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라는 의미이다.

(3) 우리들이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다. 호세아서 6장 1절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수 있다. 깨달으라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이다. 벌을 받지 않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요셉,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다.

(4)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현장을 치유하는 치유서밋이 되어야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고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치는 일을 해야 한다. 호세아 14장 4절을 보겠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라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배신자, 반역자와 같을지라도 우리를 직접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결론으로, 오늘도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다.

1. Covenant, 언약이다. 우리들이 호세아서를 통하여 붙잡을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주신다는 것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전 세계 237 나라에 고멜과 수가성 여인과 같은 여인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주시는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만약에 우리들이 이 용서와 사랑의 구원의 복음을 24시간 묵상하며 살아간다면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들이 회개하고 갱신할 부분에 대해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한다면 미래의 응답의 그림이 명확하게 보일 것이다.
5. Practice, 실천이다. 이번 주는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민족들과 고멜처럼 우리들이 회개해야하고, 잊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지워버려야 할 리스트를 기록해보기를 바란다. 기록, 생각만 하고, 인정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거듭남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예수생명, 예수능력 안에서 3천 제자와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리기를 기도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헌신하고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귀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다니엘, 요셉,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혼자 있을 때에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전에 가지 못하더라도, 그 현장에서 오히려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천년의 소망을 응답을 미리 준비하였던 것처럼 그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호세아와 같은 완전 복음으로 현장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